

코트라, 美 수출전략 ‘새판’… 품목·진출방식 다변화 논의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K-AI·소부장·소비재 등 전면

K-화장품 수출, 전년비 37% ↑
차별성 부각 현지화 지원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미국시장 수출 주력 품목과 진출 방식을 전면 재고한다. 이는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맞선 대응이다. 특히 전략을 새로 짜는 데 있어 품목 등의 ‘다변화’ 추진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강경성 사장 주재로 로스앤젤레스에서 ‘2026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북미시장 내 K-AI(인공지능) 생태계 확산을 비롯해 글로벌 제조사 공급망 재편, 뷰티·푸드·콘텐츠로 대표되는 K-컬처 붐 확산을 도모한다. 변화 속 수출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 지역 10개 무역관장이 참석해 통상환경 변화와 기회요인 등을 살폈다. 북미 수출투자 분야 및 방식 다변화, 질적 성장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세 변동성에 따른 기업대응 지원, 대미투자 이행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사장은 이른바 ‘K-마루’ 사업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6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코트라

관련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LA 무역관 상황도 점검했다. K-마루는 한국의 ‘K’와 한옥 바닥의 순우리말인 ‘마루’를 결합한 명칭으로,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역량을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이다.

현지에선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망·냉각장치 등 기반시설 수요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급증했던 대미 전력기기 수출은 올해도 8월 누계기준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한 28억 달러, 반도체 수출은 292%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변압기·케이블·전력저장장치·

냉각설비가 산업 AI 확산 관련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우리 대상국 전력설비의 미국 내 구매·설치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핵심광물, 방산, 드론 등에 이어 전력 기자재까지 공급망 보호 조치에 나선 것.

코트라는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 ‘한-미 피지컬 AI 수퍼커넥트’ 전시상담회·포럼을 개최해 협력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등 빅테크 포함 미국 측 150여 개사가 참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달라스에 미국 전력

기자재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관장 등은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미국계 글로벌기업의 제조 공급망 재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조·ICT 역량을 두루 갖춘 ‘K-소부장’ 기업을 찾는 미국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했다. 미래모빌리티·조선·방산·반도체·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R&D 협력과 북미 공급망에 신규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분야별 기회 포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 수요에 맞춰 기술 실증, 공동 개발, 솔루션 도

입 등 협력 형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K-화장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화장품의 최대 수입처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다. 8월까지 대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LA와 뉴욕 무역관 등은 미국 내 K뷰티 성공 요인으로 차별화 및 현지화 전략을 꼽았다. 색조가 아닌 스킨케어 시장 창출, 다양하고 혁신적인 천연원료, 세련되고 유익한 SNS 마케팅이 K뷰티만의 차별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이 같은 K-소비재 차별성을 부각하고 북미 유통망의 수요에 맞춘 현지화 지원을 늘려 갈 계획이다. 미국 내 대표 유통망별 필요 인증, 물류, 최소주문량, 입점요건 충족을 지원하고 우리 유통망 및 역직구 플랫폼과 K-소비재 중소기업 간 동반 진출 지원도 확충한다. 아울러, 미국 발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세환급, 원산지규정 활용 등 실무 대응을 지원한다.

강 사장은 “미중 패권 경쟁, 관세, 중동 전쟁에서 보듯 미국은 통상질서 재편의 시작점”이라며 “미국 내 시장 변화, 특히 수요 증가 분야와 함께 불확실성 속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모스크바서 ‘K-과일·디저트’ 선포

‘제2세대 K-푸드’ 육성 본격화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00여건 1대1 바이어 상담 진행

‘제2세대 K-푸드’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선과일과 냉동베이커리 등이 유망 차세대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프랑스에 이어 이달 러시아에서 이른바 ‘넥스트 K-푸드’를 선보였다.

aT는 9월 15~18일 기간 2026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K-신선과일 및 K-냉동베이커리(디저트)를 주제로 넥스트 K-푸드 특별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정부와 aT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넥스트 K-푸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넥



2026 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설치된 ‘넥스트 K-푸드 특별관’.

/aT

스트 K-푸드 프로젝트 선정기업들과 함께 한국산 사인머스켓·키위·감귤류 등 신선과일과 감자빵을 비롯한 냉동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다.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권역 등 30개국 바이어가 특별관을 찾았다.

특별관에서는 해동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과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마련했다. 박람회 기간 중 100여 건의 1대1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또 KOR숍, 레드드레곤 등 모스크바 소재 주요 유통업체와 입점 협

의도 실시했다. 러시아 시장에는 최근 다양한 한국식품 유통채널과 라면카페, 디저트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다.

현지 프리미엄 유통업체의 바이어로만 써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과 냉동식품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에서 선호될 만한 프리미엄 과일들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K-냉동베이커리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T는 박람회 기간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600여 건을 통해 현지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모스크바지사가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관계자 발굴에 나선다. 이어 올해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와 연계해 실제 수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기한 aT 수출식품이사는 “러시아는 프리미엄 농식품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K-푸드의 수출영토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 단속

주요 항만시설 내 현수막 통해 홍보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 단속에 나섰다. 특히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활동을 개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공사는 무단 드론비행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 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었고 드론 촬영 및 레저활동도 증가했다. 이에 항만 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이 추진됐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촬영 등이 제한되는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상여 출현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에 제한이 없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가보안시설로서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시민들께 협조를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노후연안선박 교체비용 지원

건조비용 30~60% 펀드 지원

해양수산부가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 가격에 따라 건조 비용의 30~60%를 펀드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비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 자부담으로 마련한다.

선사는 건조한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 동안 건조 비용을 상환하게 된다.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종 소유권은 선사에 이전된다.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펀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원 이하인 경우 선가의 60%, 60억원~120억원의 경우 50%, 120억원을 초과하면 30%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선가 150억원 이하 선박은 60%, 150억원 초과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의 지원을 받은 ‘실버클라우드호’

/해수부

300억원 이하 선박은 50%, 300억원 초과 선박은 30%를 지원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희망하는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의 경영여건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선정한다.

김해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오래된 연안 선박의 교체를 지원해 연안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현대화 펀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